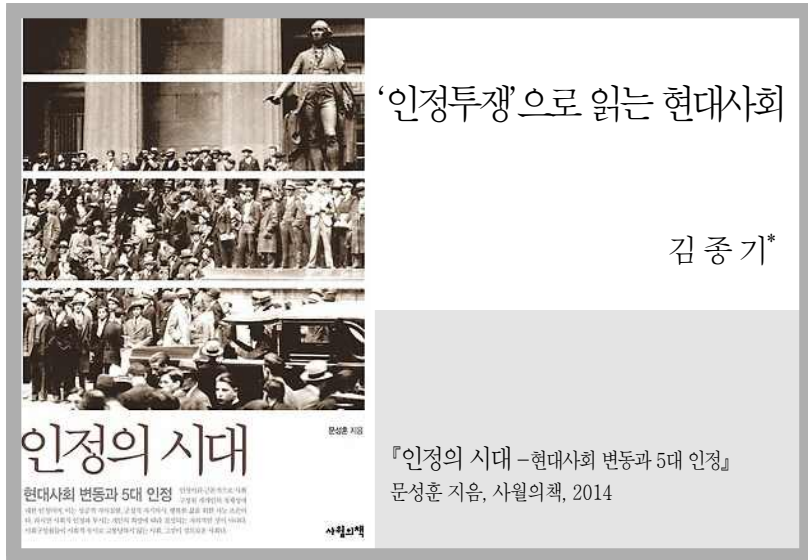


■ 서평 ■

‘인정투쟁’으로 읽는 현대사회 | 김종기

문화로 다시 읽는 동아시아

공간 생산의 역사와 서사 | 엄은희



1.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과 상호 인정

알다시피 헤겔은 자신의 『정신현상학』 「주인과 노예」(Herrschaft und Knechtschaft) 장에서 자기의식의 변증법적 운동을 서술한다. 이 자기의식이 출현하는 과정에 대한 헤겔의 해석은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문화로 이행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며, 인간이 동물적 존재로부터 인간 존재로 이행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다. 이에 따르면 첫째, 자기(Selbst)는 자기반성적 활동을 통해 자기의식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출현한다. 둘째, 인간 주체가 진정한 주체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이 주체는 그저 자신의 유일성을 의식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다른 사

* 부산대학교 철학과 강사(ki1325@hanmail.net)

람에 의해 인간주체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이것을 헤겔은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통해 설명한다. 첫째, 주인과 노예는 상호인정의 관계에 갇혀있다. 왜냐하면 주인이 주인이기 위해서는 주인은 노예로부터 그렇게 인정되어야 하며 또한 노예도 주인에 의해 그렇게 인식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노예임을 알기 때문이다. 둘째, 주인은 자신의 정체성이 노예의 인정에 의해 확인되었다는 확실한 인식 속에서만 자신의 인생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인은 그의 정체성에 대한 인정을 노예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셋째, 노예는 노동이라는 자기 확인을 위한 다른 근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인이 노예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주인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노예는 주인과 달리 자신의 정체성을 노동을 통해 확증한다. 따라서 만약 노예의 정체성이 그의 노동을 통해 확증된다면 자유로운 사람은 주인이 아니라 노예이다.

이러한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은 칼 마르크스와 게오르그 루카치를 거쳐 오늘날의 여러 해석자들에 이르기까지 상호 인정을 위해 투쟁하는 다양한 인간들 사이의 사회적 노동관계로서 이해된다.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 프랑스에서 알렉상드르 코제브의 세미나에서 헤겔 강의를 들었던 데리다, 라캉, 바타이유, 푸코 등에 의해 포스트구조주의에 각인되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알렉상드르 코제브는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욕망과 인식의 투쟁으로 해석한다. 코제브에 따르면 주인과 노예는 인정을 위한 상호투쟁 속에 갇혀 있다. 어느 한 쪽도 타자의 인정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동시에 타자 또한 상대방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목숨을 건 투쟁인 동시에 만약 한편이 죽는다면 다른 한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이렇게 주인과 노예는 서로에게 최악의 적이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다른 한 쪽이 없이는 승산이 없는, 다시 말해 자신의 존립을 위해 상대방을 필요로 하는 관계 속에 갇혀 있

다. 라캉의 말처럼 한 인간이 어떻게 해서 다른 인간 안에 존재하는가, 또는 한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다른 인간을 통해 드러낼 수밖에 없는가를 밝힌 것은 헤겔의 위대한 통찰이었다. 이렇게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은 코제브의 해석을 거치면서 인간 상호간의 인정을 위한 ‘투쟁’으로 상승한다.

2. 악셀 호네트의 인정투쟁

프랑크푸르트학과 3세대로 칭해지는 악셀 호네트는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서 상호 인정을 ‘인정투쟁’으로 확장시켜 해석하고 그것을 자신의 철학적 출발점 또는 자신의 사상적 토대로 삼는다. 이때 그는 이를 위해 하버마스과 푸코를 한편으로 수용하고 한편으로 비판하면서 ‘인정투쟁’을 이론적으로 다진다. 다시 말해 호네트는 인정투쟁 이념을 통해 하버마스과 푸코의 이론적 관심을 매개할 수 있다고 본다.

호네트에 따르면 푸코는 모든 형태의 공동체, 모든 형태의 사회를 인간들에서 벌어지는 항구적인 투쟁의 일시적 휴전상태로 포착한다. 다시 말해 푸코에 따르면 사회적인 것의 본질적 모습은 투쟁이며, 성립되어 있는 질서란 일시적인 휴전상태일 뿐이다. 이렇게 푸코처럼 사회가 항구적인 투쟁과 갈등의 과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푸코는 투쟁의 동기를 흡스, 또는 니체처럼 자기 보존이나 자신의 권력 강화에서 찾는다. 그런데 호네트는 투쟁 동기를 이러한 데에서 찾는 것은 인간학적으로나 사회 이론적으로 불충분하며 또한 잘못되었다고 본다. 이에 따라 그는 헤겔적인 인정의 형식에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적 이념을 결합하여 더 분명한 투쟁 모델을 만든다. 즉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주장의 타당성을 의사소통적으로 인정받길 원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

은 개별자이든 집단이든 단지 자기 보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한 사회 속에서 투쟁한다. 호네프트는 바로 여기서 푸코와 하버마스의 연결고리를 찾는다. 그에 따르면 인정투쟁 모델은 푸코의 투쟁 이념과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이념을 결합시킨다.

그런데 인정투쟁 모델은 갈등 또는 투쟁의 관점이 빠져 있는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모델을 보완하고 넘어설 수 있게 해준다. 왜냐하면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모델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신뢰 때문에 개인의 사회화 과정이나 인간들 사이의 상호 작용 속에서 드러나는 갈등, 또는 투쟁의 요소가 간과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모델은 투쟁의 동기를 지나치게 흡수적으로 자기 보존에서 찾는 푸코의 결함을 보완하고 넘어설 수 있게 해준다. 호네프트가 보기에 사회란 단순히 자기 보존을 위해 싸우는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다. 푸코에게 투쟁의 동기는 억압이고 투쟁의 목표는 자기보존이지만, 호네프트에 따르면 투쟁의 동기는 무시이며, 투쟁의 목표는 인정이다.

나아가 호네프트는 성공적인 삶의 조건으로 사랑, 권리, 사회적 연대라는 세 가지 인정 형태를 제시한다. 호네프트에 따르면 인간은 사랑, 권리, 연대를 통해 타인의 인정을 경험함으로써 긍정적 자기의식을 갖게 됨은 물론, 성공적 자아실현의 조건을 확보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인정이란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사회 비판의 규범이 된다. 호네프트는 윤리를 삶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행위나 법칙을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치로 규정한다. 왜냐하면 호네프트는 인간의 삶이 타인으로부터 훼손당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이란 자신의 삶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면서 자기의식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해 인간은 자신이 누구이고 또한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의 삶은 단순한 생존유지가 아닌 자기실현을 의미한다. 그런데 성공적 자기

실현의 가능성이 타인의 인정, 다시 말해 나에게 대한 타인의 긍정적 태도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 인정윤리의 관점이다. 내가 타인의 부정적 태도를 경험하게 된다면 심리적 상처는 물론 자신의 정체성과 삶에 대한 긍정적 관계가 훼손될 위험에 빠진다. 따라서 개인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간 상호간의 윤리적 의무가 필요하며, 그 의무의 내용이란 각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상호 인정이다. 즉 인정이란 타인의 자아실현을 보장하는 필수적 조건이며, 이런 점에서 상호 인정은 인간 상호간의 의무로 설정될 수 있다. 여기까지가 호네프가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바탕으로, 그리고 하버마스와 푸코를 넘어 자신의 인정이론을 전개하는 핵심적 내용이라 할 수 있다.

3. 『인정의 시대』의 미덕과 예상 가능한 비판

『인정의 시대. 현대사회 변동과 5대 인정』의 저자 문성훈 교수는 악셀 호네프의 지도로 박사 학위를 받고 또 악셀 호네프의 주요 저작을 한국어로 번역한 연구자답게, 인정이론이라는 틀을 빌려 현대사회의 변동에 인정관계의 구조변화로 포착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그는 시대적 변동에 따른 국민적 요구를 새로운 인정 요구로 해석함으로써, 자신의 책을 한국사회의 새로운 도덕적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토대로서 제공할 수 있으리라는 학자로서의 당연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는 인정이론에 따라 인간의 자기의식과 삶은 사회적 인정을 통해 형성되고 그 실현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그는 시대변화란 인정관계의 구조변화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적 인정이란 결국 개인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필수적 조건이 된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은 현대사회의 변동 속에서 새로운 인정

요구를 도출하고자 하며, “시대 변화를 단순한 역사적 사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행복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틀 속에서 재구성해 보려는” 시도이다. 이 책은 이렇게 “행복한 삶과 인정과의 관계를 전제하면서 신자유주의 확산으로 인해 손상된 사회적 연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다양한 영역에서 제기된 새로운 인정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기존의 인정관계를 재편하는데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 있다. 따라서 저자는 새로운 인정 요구가 무엇인지를 밝히면서 현대사회 변동을 인정관계의 구조변화를 통해 읽고자 한다. 무엇보다 저자는 자신의 이 시도를 통해 사회의 발전을 생산관계의 구조변화로 보는 마르크스주의를 넘어, 현대사회를 합리성의 차원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베버, 루카치,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 및 하버마스를 넘어서고자 한다. 더 나아가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근대적 주체, 즉 세계의 모든 현상을 총체적인 보편 법칙에 따라 파악하려 한 이성적 주체의 폭력성을 비판하려 하지만 그 때문에 자유 실현과 역사의 진보라는 규범적 이상을 놓쳐버린 포스트모던적 사유를 넘어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시 말해 현대철학의 근본 과제는 “포스트모던적 비판을 수용하면서도 모던의 기획을 자기반성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인정관계가 생산관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에 대한 생산관계 분석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보는 관점에서 있다. 저자에 따르면 인정관계이론은 생산관계이론처럼 모든 사회 현상을 하나의 단일한 차원으로 환원시키지 않는다. 구체적 인간관계에서 등장하는 인정관계는 다양하며, 이러한 다양성에 따라 사회적 영역 역시 다원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정관계의 분석은 인정관계를 통해 사회적 관계의 근원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다양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저자의 지적처럼,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활성화를 통해 도구적 합리성으로 축소된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하려 하지만, 정작

사회구성원들이 서로를 동등한 의사소통의 주체로 인정하는 사회적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인정이론이 취하는 인간관계의 분석은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도구적 합리성의 지배를 통한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파괴라는 고도의 추상적 문제의식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이 직접적으로 당하는 사회적 무시 경험과 이로 인한 도덕적 울분으로부터 도출해낸다. 또한 인정관계 분석은 근본적으로 보편적 원칙에 따른 독백론적 자기반성의 주체가 아니라, 타자의 시각을 통한 자기반성을 추구하면서 타자 속에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상호주관적 주체를 전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자는 인정관계 분석이 모던적 주체관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지만, 자유와 진보라는 모던적 이상을 포기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이렇게 인정이론을 통해 사회통합의 토대를 찾고자 하며, 이러한 자신의 시도가 호네프의 ‘인정이론’에 따른 것임을 밝힌다. 호네프에 따르면 사회적 갈등과 저항이 일어나는 원인은 사회구성원들이 현존하는 제도적 현상들을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데 있으며, 이러한 부정의(不正義) 개념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사회적 무시, 혹은 사회적 인정요구의 훼손이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는 방법은 인정관계의 확대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저자는 오늘날 대안적 사회의 토대가 되는 인정관계를 ‘5대 인정’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이 바로 친밀성 영역, 정치적 의사결정 영역, 경제적 생산 영역, 문화적 유대 영역, 세계적 영역에서의 인정이다. 그는 자신이 제시하는 이러한 5대 인정이 호네프가 말하는 사랑, 권리, 연대라는 세 인정 유형을 넘어서는 더 구체적인 인정관계라고 파악한다.

그에 따르면 호네프가 구분한 세 가지 인정 유형은 타인을 인정한다는 것이 어떤 행위 유형을 통해 표현되는 것인지를 보여준 것에 그치며, 이런 인정 행위 유형을 통해 개개의 사회 구성원이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

서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고, 또 어떤 존재로 인정되고 있는가 하는 것, 즉 구체적 인정관계를 보여준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저자는 자신의 책이 인정관계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보편적 추상적 이론을 넘어서 구체적인 현실, 미시적 인정질서를 분석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책의 1부는 이론적 토대로서 인정 패러다임을 다루며, 2부는 미시적 인정질서에 대한 분석을 다루고 있다. 2부 <현대사회 변동과 인정관계 구조변화>에서 저자는 친밀성의 영역, 정치적 의사결정의 영역, 경제적 생산 영역, 문화적 생활 영역, 세계질서 영역의 구조변화를 분석하면서 한국사회와 더 나아가 세계촌으로까지 인정관계의 구조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분석의 결론은 ‘글로벌 시민사회’로 모아진다. “글로벌 시민사회는 국가나 시장과 분리된 비정부적이고 비시장적인 영역으로서 인류의 보편적 이익과 관점이 형성되고, 유포되고, 공유되는 곳이다.” 이를 통해 저자는 다음과 같이 자기 주장의 궁극적 지향점을 결말짓는다. 즉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는 방법으로서의 인정관계의 확대는 글로벌 시민사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인류 공동체를 위한 투쟁, 즉 더 많은 사람들이 인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서로 연대하는 투쟁, 다시 말해 인정투쟁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저자는 이 책의 이론적 토대를 구성하는 1부에서 성실하게 호네트의 성과를 해석하여 재구성하며 나아가 그것을 자신의 5대 인정요구를 제시할 수 있는 바탕으로 삼는다. 나아가 2부에서 그것을 현대사회의 변동이라는 구체적 현실에 적용하면서 사회철학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이 책은 이론과 실천의 결합이라는 사회철학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데에서 미덕을 찾을 수 있다고 보인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호네트의 인정투쟁 이론에 가할 수 있는 비판, 예를 들어 시장 과정이 전적으로 인정의 동역학에 종속되어 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

다는 프레이저(Nancy Fraser)의 비판을 상기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오늘날 발전된 산업 국가들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서 일선 생산주체, 즉 노동자들의 대량실업은 인정투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것이 인정투쟁이나 인정 관계의 확대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호네트의 인정투쟁 모델은 도덕적으로 규범적 통합을 우선시하며 이해관계의 대립을 둘러싼 투쟁을 인정투쟁으로 환원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책의 저자는 자신이 기대고 있는 인정이론에 대한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가해질 수 있는 자신의 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려 줄 수 있을 것인가?

